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타이포그래피의 환경 변화 연구

-25년간 디자인 관련 잡지의
타이포그래피 기사를 중심으로-



漢城大學校 大學院

미디어디자인學科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專攻

李 恩 敬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金 志 炫

타이포그래피의 환경 변화 연구

-25년간 디자인 관련 잡지의
타이포그래피 기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hange of Typography Condition

-Focused on the typography contents in the
magazines related design during 25years-

2008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大學院

미디어디자인學科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專攻

李 恩 敬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金志炫

타이포그래피의 환경 변화 연구

-25년간 디자인 관련 잡지의
타이포그래피 기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hange of Typography Condition

-Focused on the typography contents in the
magazines related design during 25years-

위 論文을 美術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8年 12月

漢城大學校 大學院

미디어디자인學科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專攻

李 恩 敬

李恩敬의 美術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08年 12月 日



HANSUNG
UNIVERSITY

審査委員長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국문초록

본 연구는 문화현상이라는 전제 하에 지금까지 디자인 분야의 모장의 현장을 보도해주고 장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해왔던 디자인 잡지에 게재된 타이포그래피 기사 중 1983년에서 2007년까지의 25년 동안을 연구 범위로 하여 컴퓨터의 등장으로 활발해진 타이포그래피 분야의 97-98년 전후의 역사를 살펴보고 분석하여 우리나라 타이포그래피 분야의 발전과 관심의 변화를 짚어봄으로써 현재 타이포그래피 분야의 문제점과 향후 타이포그래피가 나아가 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연구 목적을 두었다.

분석의 분야는 타입, 타이포그래피, 타이포그래피 영역으로 나누었다. 타입 영역에서는 실무, 교육, 전시, 평론·이론·담론, 저작권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고, 타이포그래피 영역에서는 실무, 교육, 전시, 평론·이론·담론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타이포그래피 영역에서는 기사 빈도, 활동 지역과 부분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타이포그래피의 환경 변화를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컴퓨터의 발달로 인터넷의 경계가 국내외적으로 넓어지고 그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98년 이전 보다 타이포그래피 관련 기사뿐 아니라 타이포그래피의 기사 양이 현저히 늘어나고 타이포그래피의 활동성 또한 다양해졌다. 각국의 문화, 사건, 이슈 속에서만 그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화 되고 글로벌 해지는 문화로 점차 변화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둘째, 손으로 혹은 타자기나 사진식자에 의해 만들어진 활자들이 컴퓨터의 정교하고 편리함 속에서 예전과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디지털 폰트가 등장했고, 그에 따른 문제로 폰트디자이너들이 법적으로

활자를 보호해야한다는 주장과 함께 글자체 보호법이 생겨났지만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디지털 시대와는 역으로 아날로그적인 캘리그래피가 관심이 증가하였는데, 디지털 속성의 불완전성을 아날로그적 감성을 담아 보완함으로써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2차원적인 인쇄물에서 벗어나 다른 영역과의 결합으로 문학, 패션, 제품 등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외국과의 교류로 인한 전시와 수업 또한 확산되고 있다.

다섯째, 90년대 디지털시대가 열리면서 급증하는 인쇄 매체나 일부 역사적 개념이 미흡한 디자이너들에 의해 잘못 해석된 디지털 타이포그래피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한 평론이 늘어났다. 또한 이 시대에 필요한 타이포그래피의 의미 있는 이론과 함께 타이포그래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관심이 증가하였다.

여섯째, 국내 타이포그래피의 경우 지역적이고 분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한정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국외 타이포그래피들의 경우 한 분야에 국한 되지 않고 다양한 활동 영역과 넓은 교류의 폭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신 타이포그래피 혁명가 얀 치홀트는 ‘시대정신’, ‘시대에 대한 책임’으로 디자이너가 가져야 할 책임을 지적했다. 시대적 상황과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발견된 문제들을 시대언어로 풀고자 노력했던 그의 모습은 시대와 호흡해서 그 시대의 문화를 창조해야 하는 디자이너들에게 가치 있는 본보기다. 즉, 그가 말한 것처럼 무엇이 정답이냐가 아니라 타이포그래피가 그 당시 상황과 그 시대정신을 얼마나 반영하면서 발전을 했는가에 우리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지금까지의 분석내용에서 우리의 시대에 대한 책임을 발견해 내는 일과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는 디자인 양식을 정립해야 하는 것이 타이포그래피들의 과제로 남아있다.

목차

1. 서론	1
1.1. 연구배경 및 목적	1
1.2. 연구범위	3
2. 타이포그래피 관련 기사 내용 및 분석	5
2.1. 타입	5
2.1.1. 타입 실무	5
2.1.2. 타입 교육	6
2.1.3. 타입 전시	6
2.1.4. 타입 평론 · 이론 · 담론	7
2.1.5. 타입 저작권	8
2.2. 타이포그래피	8
2.2.1. 타이포그래피 실무	8
2.2.2. 타이포그래피 교육	9
2.2.3. 타이포그래피 전시	10
2.2.4. 타이포그래피 평론 · 이론 · 담론	10
2.3. 타이포그래퍼	12
2.3.1. 국내외 타이포그래퍼의 기사 빈도	12
2.3.2. 국내외 타이포그래퍼 활동 지역	16
2.3.3. 국내외 타이포그래퍼의 활동 분야	17
3. 기사분석을 통한 타이포그래피 환경 변화	22
3.1. 타입	22
3.2. 타이포그래피	25
3.3. 타이포그래퍼	27

4.결론	31
참고문헌	35
부록	36
Abstract	58



표 목 차

<표 1> 국내외 타이포그래퍼들의 기사 빈도 수	12
<표 2> 연도별 기사화된 국내외 타이포그래퍼	13
<표 3> 국내외 타이포그래퍼들의 활동 지역	17
<표 4> 국내외 타이포그래퍼의 활동 분야	18
<표 5> 타이포그래퍼의 활동분야 비율	20

그림 목 차

<그림 1> 기업전용서체	6
<그림 2> 영화 포스터의 캘리그래피, 박우혁 作	6
<그림 3> 영문폰트	7
<그림 4> 캘리그래피로 표현된 영화포스터	9
<그림 5> 타이포그래피를 이용한 소설의 시각화 작업	11
<그림 6> 이상(李相)시에 대한 타이포그래피적 해석	11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영국의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는 그의 저서 <이기적 유전자>에서 처음 언급한 단어인 ‘밈(meme)’은 ‘미메메(mimeme)’라는 그리스어에서 시작된다. 미메메는 모방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있는데 생물학적 유전자처럼 모방을 통해 한사람의 노에서 다른 사람의 뇌로 전달되며 사람의 문화심리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말한다.

본 연구는 디자인도 음악이나 사상이나 언어, 건축과 같은 밈의 범위에 있는 문화이고, 문화현상이라는 전제 하에 시작하였으며, 지금까지 디자인 분야의 모방의 현장을 보도해주고 장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해왔던 디자인 잡지에 게재된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타이포그래피는 사람이 활동하는 모든 환경 속에서 글자는 필수 불가결한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람간의 정보전달을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해야만 하는 본질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기에 타이포그래피는 예술 활동 이전에 과학이 되어야 한다. 글자들은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이포그래피적 적용이 긴밀하게 요청되는 것이다.

1984년 매킨토시 컴퓨터의 등장과 디자인 관련 소프트웨어의 등장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디자인의 큰 변화를 가져 왔다. 한국의 경우 1989년부터 본격적으로 디자인 회사들이 디지털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디자인이 보다 빠르게 성장했다. 특히 기술적인 변화가 가장 큰 것은 타이포그래피 분야였다. 한글 글꼴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서체 회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디자인 회사나 대학 등의 커리큘럼들이 변화되고 그 속도 또한 빠르게 진행됐다. 더욱이 디지털 시대가

확산됨에 따라 국가와 국가 간의 경계가 없어지고 디자인 문화에서 ‘독일적’, ‘스위스적’, ‘한국적’이라는 개념들은 이제 서서히 의미를 잃어가고 있으며, 21세기는 디자이너들이 함께 호흡함으로써 인류에게 줄 수 있는 디자인의 미학적 공감에 요구된다.

인류는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을 필요로 하며 또 인류가 존재하는 한 커뮤니케이션 도구에 대한 탐구는 계속되어왔다. 인류의 4대 발명품 중 하나인 종이와 생겨나면서 정보를 공유하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디자인 잡지 또한 그래픽 디자인의 역사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며 발전을 거듭해 왔고 책과 신문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정보와 창의적의 생각을 새로운 시각으로 조합하기 시도를 통해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1990년을 전후하여 매킨토시 컴퓨터가 디자인 시장에 보급되어 디자인의 양적 팽창이 시작되면서 과거의 인쇄방법은 전자 출판방법으로 대체되었고, 이를 뒷받침하고 이끌어갈 타이포그래피 분야에도 일대 혼란이 일었다. 디지털 방식의 디자인이 등장하면서 기술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폰트개발과 인쇄물의 종류 또한 다양해졌지만 무분별한 글자꼴의 선택과 아이덴티티가 결여된 글자꼴의 적용과 활용은 많은 문제를 남기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건과 사고들. 즉, 지금까지 디자인분야의 현장을 보도해주고 장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해왔던 디자인 잡지에 게재된 기사를 분석하였는데 디자인 잡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실적 내용과 독자들의 관심거리와 더불어 관심을 유도하는 내용이고, 그 시기의 이슈를 자연스럽게 반영해 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문화적인 변화, 기술적인 변화에 의한 타이포그래피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잡지는 신문, 방송과 더불어 언론의 3대 기간(基幹)으로서 사상 및 지식 전달을 주요 임무로 삼는다.¹⁾

신문과 책의 중간위치에 놓여 있는 정보매체이면서 문화매체로 잡지

1) 잡지총람Ⅱ, 서울: 한국잡지협회, 1982, p47

는 신문이나 방송매체에 비해 적시성(適時性)과 항구성(恒久性), 근속성(勤續性)을 모두 지닌 유일한 매체라고 할 수 있으며,²⁾잡지와 말 그대로 다양한 정보와 관심거리들을 한데 모아놓은 책으로 대중의 삶을 좀 더 지적으로 유도하는 매력적인 매개체이다. 잡지는 그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생활양상의 거울인 것이다.³⁾ 따라서 디자인 잡지 역시 디자인 관련된 문제의식과 올바른 역사적 방향감각으로 이념이나 가치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최신의 정보를 통해 디자인계의 경향이나 흐름을 파악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25년간의 디자인 잡지 분석을 통해 타이포그래피의 중요성과 시대적 흐름을 파악하고, 국내외 타이포그래피를 비교 분석하며, 이를 통해 타이포그래피의 변화적 특성을 짚어봄으로써 현재 타이포그래피 분야의 문제점과 향후 타이포그래피가 나아가 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1.2. 연구범위

연구범위는 디자인 관련 잡지에 게재된 타이포그래피 관련 내용으로 제한했으며, 1983년부터 2007년까지 지난 25년간을 분석대상 시기로 하였다. 이는 타이포그래피의 디지털화, 테크놀로지의 개입이 활성화되었던 97-98년을 축으로 볼 때 의미 있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97-98년의 축으로 시대적 전 후를 비교해 봄으로써 시간의 흐름과 변화를 짚어보았다.

또한 분석 대상인 디자인 잡지는 1980년대 이후부터 발간된 국내 잡

2) 서기훈, 정기간행물의 표지, 월간 디자인, 1983.06

3) 최지은, 「디자인 전문지의 편집디자인에 관한 연구」, 2007, p1

지 중 시각디자인 분야에서 타이포그래피의 흐름을 짚어 볼 수 있는 ‘디자인’, ‘코스마’, ‘디자인네트’로 선정하였다. 이외의 ‘임프레스’등의 디자인 잡지도 발간되었으나 월간 임프레스가 창간된 1995년 당시 컴퓨터그래픽 및 멀티미디어 관련 잡지의 성격으로 간행되었기 때문에 시각디자인 전반에 관한 잡지 영역에서는 제한하였다.

‘디자인’지는 1976년 10월에 창간⁴⁾되었다. 언론 통폐합 조치 후 ‘디자인’이 폐간 당하자 ‘디자인’을 ‘종합디자인’으로 제호를 바꿔 다시 복간시켜 경영과 편집으로 동시에 진행시키면서 1986년10월에는 100호 기념호를 발간하였다. ‘디자인’지는 우리사회의 산업발전과 더불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을 거듭하며 전문지의 한 전형으로서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 잡지는 당시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산업디자인계에 건전한 의미의 자극제가 되었고, 대중들에게 디자인의 개념을 보편화시킬 수 있는 교량 역할을 해왔다. 이는 잡지가 그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좋은 영향력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성장기에 놓인 우리사회에 바람직한 거울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⁵⁾

‘코스마’는 1982년에 창간하여 1997년에 폐간된 디자인 잡지이다. 1980년대까지도 바우하우스를 중심으로 하는 모더니즘 디자인의 특성으로 엄연히 살아남아 왔는데, 이러한 모더니즘 디자인은 미국, 유럽 및 전 세계에 유행했고, 또 단연 우세하였다. 그러나 디자인 역사 150년을 조감해보면 그 어떤 양식은 오늘날까지 살아남아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어떤 양식은 역사 속에 묻혀버리기도 했으며, 또 어떤 양식은 다시 부흥하여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발전함으로써 자극과 흥미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⁶⁾

4) 1976년 10월. 1970년대 중반은 디자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무척 부족할 때다. 동시에 수출이 활성화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하던 때이기도 하다. 월간 ‘디자인’은 그런 과도기에 창간되고 디자인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되었다.

5) 유정미, 『잡지는 매거진이다』, 효형출판, 2002, p45

6) 정시화, 『산업 디자인 150년』, 미진사, 1991, p80

‘디자인네트’는 1998년에 창간되어 현재까지도 계속 발행되고 있는 잡지로써 ‘디자인’지보다 15년 늦게 창간됐지만 통계적으로 타이포그래피를 다룬 기사의 양은 ‘디자인’지 162건, ‘디자인네트’ 163건으로 서로 견주어 볼만하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잡지의 총 권수 및 기사 권수는 월간 디자인, 코스마, 디자인네트는 총 171권에 타이포그래피 기사 337건. 월간디자인(1983-2007)은 91권, 161건, 코스마(1982-1997)는 8권, 17건, 디자인네트(1998-2007)는 72권, 159건이었다.

2. 타이포그래피 관련 기사 내용 및 분석

2.1. 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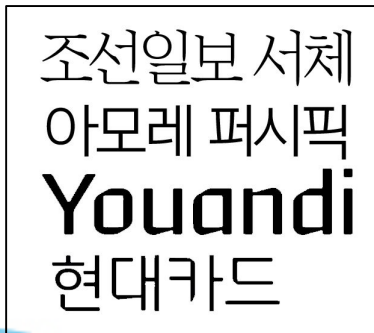
2.1.1. 타입 실무

실무에 관한 기사로는 한글 활자체에 대한 기사와 신문의 변화, 캘리그래피, 기업전용서체, 폰트회사 등의 기사가 있었다.

98년 전반기에는 한글 활자체의 개발의 중요성과 과정, 문제점, 디지털 작업의 효율성 등 기계화에 따른 탈네모꼴의 활자에 대한 기사에 대해 10건의 기사가 있었고, 후반기에는 새로운 경향과 가능성 등 디지털화에 따른 폰트개발로 조합형폰트에 대한 8건의 기사가 다뤄지고 있다. 그 문제에 대해 끈임 없이 다뤄지고 있지만 21세기 이후부터는 캘리그래피의 특성과 변화에 대한 기사가 5건, 기업의 전용서체에 대한 기사 5건, 서체, 레이아웃의 변화로 진화한 신문이 4건으로 다양하게

기사화 되고 있었다.

또한 92년에 ‘폰트샵이 자리잡아가고 있다.’ 라는 기사로 한 차례의 회사들이 소개되었지만 98년 이후 폰트 회사와 캘리그래피 회사의 기사가 5건으로 소개되었다.



<그림 2> 기업전용서체



<그림 1> 영화 포스터의 캘리그래피, 박우혁 作

2.1.2. 타입 교육

98년 이전에는 교육관련 기사가 전혀 다뤄지지 않고 있다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한국글꼴개발원과 한글꼴을 배우고 공부하는 홍익대의 ‘한글꼴 연구회’ 서울여대의 ‘한글아씨’ 등 한글 타이포그래피 단체, 동아리 위주로 소개되고 있다.

2.1.3. 타입 전시

전반기에는 기사화 되지 않던 전시영역이 98년 들어서면서 기사 수가 18건으로 늘어났고, 전시 12건, 세미나, 공모전 각각 3건으로 소개되었다. 2000년 제1회 한글꼴 공모전을 중심으로 2003년에는 캘리그래피

디자인전과 함께 온라인 전시도 활발해졌다.

국내외 활발한 교류로 인한 국외 디자이너들의 국내 전시와 세미나, 한일 타이포그래피 포럼 등 기사가 눈에 띄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2.1.4. 타입 평론 · 이론 · 담론

전반기에는 고 김진평의 한글 활자체 변천의 사적 연구를 시작으로 한글의 역사, 기계화, 컴퓨터 활용 등 한글 활자체에 관한 이론이 11차례 소개되고 특히 98년, 99년도에 그 기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후반기에는 37건의 연재 기사가 있었다. 폰트 관련한 이론 기사에서는 폰트만을 따로 기사화 한 것이 아니라 타이포그래퍼의 인터뷰에 서체가 언급되는 정도로만 다루어지다가 후반기에는 영문폰트의 관심으로



<그림 3> 영문폰트

가라몬드, 헬베티카, 길산스, 푸추라 등 과거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던 폰트를 중심으로 14건의 폰트에 관한 기사가 게재되었다.

또한 국내 1세대 폰트그래퍼들의 한글 글자꼴에 대한 생각이 주를 이뤘다면 98년 이후에는 신세대 폰트그래퍼들의 글꼴 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생각을 담은 기사가 늘어났다.

2005년부터 1년간 12차례의 ‘한글 · 한글디자인 · 디자인’ 대한 기고가 있었다. 그 중 저작권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고 따로 분류하였다.

2006년에도 명조체에 대한 기사, 사진식자의 개발 등 일본 타이포그래퍼들의 공동기획 연재가 1년간 있었다.

2.1.5. 타입 저작권

15년간 저작권에 대한 기사는 89년10월호에 ‘타입페이스는 저작권법의 우산을 쓸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단 1회에 그쳤다. 그 후 99년부터 ‘디자인’과 ‘디자인네트’의 5차례에 걸친 기사가 소개되었고, 국외의 사례가 소개되었는데, 저작권법이 생긴 2005년에 기사가 더 많이 다뤄졌다.

2.2. 타이포그래피

2.2.1. 타이포그래피 실무

전반기에 기사화 되지 않았던 실무 영역이 후기에 들어서 25건이나 증가하는 등 한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타이포그래피 관련 기사도 많아졌다. 전용서체가 등장하는 등 활발한 한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는 그 영역이 확장되어, 1-2년 간격으로 꾸준히 기사가 등장하고 있다.

패션, 제품, 광고, 영상, 조형물, 인쇄(포스터, 북커버, 잡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역을 넓혀 가고 있는데, ‘이상봉의 한글 패턴 의상디자인’, ‘휴대폰, 한글을 입다. 에디션’, ‘영화포스터의 변화를 주도한 글꼴디자인, 캘리그래피’, ‘감사원의 간행물발간지침서’ 등이 소개되고 있다. 제품 관련해서는 2건의 기사가 소개되었고, 인쇄 분야에서는 5건의 기사가 다뤄졌다. 특히 캘리그래피는 다양한 영역의 접목으로 패션, 제품, 영상, 인쇄 부분 등의 기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이밖에도 작품이나 회사에 관련된 기사가 소개되었는데, 작품의 경우 국외 작가들의 작품의 기사 3건과 국내 작가의 레이아웃과 문학적 만남을 디자인화한 기사가 2건에 다르고 있다. 회사의 경우 총 9건의 기사로 국내 회사 5건, 국외 회사 4건의 기사가 소개되었다. 국외 회사

기사 중, 98년 11월 기사는 유럽 회사들의 특집 기사를 다루고 있다.



<그림 4> 캘리그래피로 표현된 영화포스터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영화 포스터의 변화를 주도한 캘리그래피, 패
션디자이너가 디자인한 한글 옷, 각종 제품 등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2.2.2. 타이포그래피 교육

1983년부터 1998년 이전까지는 타이포스트레이션이라는 새로운 교육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단 한 차례의 기사가 있었고 국내의 타이포그래
피 수업을 소개하는 기사가 전부였으나 후기 들어서는 총 9건의 기사
로 국내 학교 5건, 국외학교와 단체 기사 4건으로 유학인물을 통해서
국내 학교뿐만 아니라 국외의 학교도 많이 소개 되었다. 스위스 바젤디
자인학교(Basel School of Design, Hochschule für Gestaltung und
Kunst Basel), 헤이그 왕립미술학교(The Royal Academy of Art,
Hague, Netherlands), 라이프치히 그래픽&북아트 대학(Hochschule für
Grafik und Buchkunst Leipzig, Germany), 타이포그래피 공방
(Werkplaats Typografie) 등 유명한 디자인 학교들이 기사화되었다.

비록 자세한 기사는 아니었지만, 최근 ‘국제 청년디자인 워크숍’을 통

해서 그동안 주목받지 않았던 일본의 무사시노 미술대학교, 중국의 중앙미술학원, 호북미술학원 등의 학교들을 소개하고 있다.

2.2.3. 타이포그래피 전시

전시 및 작품을 살펴보면 90년대에 ‘KOGDA 주최 편집디자인 세미나’와 ‘제4회 한글 활자꼴 디자인 세미나’로 보다 적은 2건의 기사가 거론되었을 뿐이며, 이에 비해 후반기에는 29건의 기사로 스테판 사그마이스터, 네빌프로디, 조나단 반브룩 등 해외 디자이너들의 전시와 세미나가 5차례에 걸쳐 다루졌다. 조나단 반브룩의 경우 ‘디자인네트’지가 2년에 걸쳐 3차례 기사를 다루었다.

국내외간 교류를 통해 성립된 국제 전시와 세미나가 5차례의 기사로 다루어졌으며, 펍컨북스, 안그래픽스, 601 비상 등의 디자인 전문 회사 내에서 주관하는 전시나 세미나가 3건으로 보도되었다.

2004년에는 전시, 세미나에 대한 기사가 7건으로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2.2.4. 타이포그래피 평론 · 이론 · 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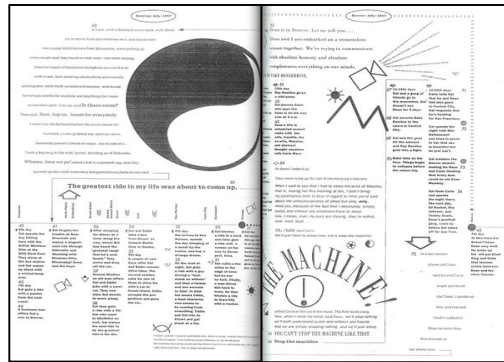
1998년 이전에는 총 16건의 기사가 소개되었고 이후에는 그 두 배인 32건의 기사가 소개되었으며, 이론적인 내용에서는 전반기 4건, 후반기 18건으로 4배가량 증가했다.

93년에는 한국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방향과 문제에 대한 소개와 타이포그래피를 이용한 소설의 시각화 작업에 관한 논문⁷⁾이 소개되었다. 또한 안상수의 ‘이상의 시에 대한 타이포그래피적 해석’의 논문이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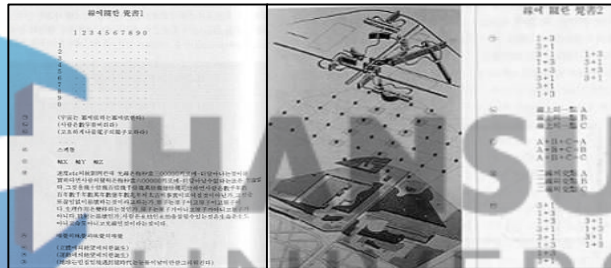
7) <디자인이슈(Design Issues)92년 가을, Vol. IX Num.I>

미국예일대학 대학원 그래픽디자인과 크리스틴 세라노(Christine Celano)의 석사학위 논문 타이포그래피를 이용한 소설의 시각화 작업

「A Typographic Visualization of the Narrative Structure of On the Road」



<그림 5> 타이포그래피를 이용한 소설의 시각화 작업



<그림 6> 이상(李相)시에 대한 타이포그래픽적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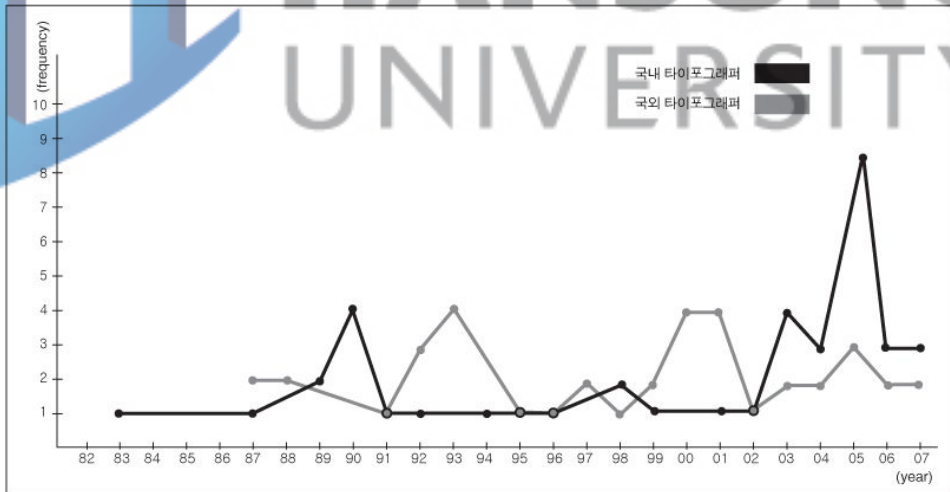
되었다.

1987년 1월에 ‘요셉-물러 브로크만의 그리드에 대하여’ 라는 기사를 시작으로 포스터 책표지에 관한 기사와 타이포그래피에 관한 연구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었다면 2006년에는 1년에 걸친 디자인 기호학에 관한 특집 기사를 볼 수 있다.

2.3. 타이포그래피

2.3.1. 국내외 타이포그래피의 기사 빈도

<표1>은 잡지 기사에 실린 타이포그래피 관련 타이포그래퍼들의 기사 빈도 수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전기⁸⁾는 80년대와 90년대로 나눌 수 있는데 기계화의 선구자 이상철의 뒤를 이어 1983년에 안상수를 시작으로 서기훈, 정병규 등의 북 디자이너들의 기사들이 중심이 되었고, 국외 타이포그래퍼와 국내 타이포그래퍼의 기사를 볼 수 있다. 90년대에 들어서서 안상수, 석금호 외에 김진평, 윤영기, 한재준이 포함되면서 타이포그래피 관련 기사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⁹⁾ 또한 유학과 박효신의 인터뷰를 통해 국외에서 타이포그래피 관련 유학을 하고 온 이들에게도 관심을 나타내고 있었다. 국외 타이포그래퍼의 경우, 지금은 고인



<표 1> 국내외 타이포그래퍼들의 기사 빈도 수

8) 본 연구에서는 25년을 97-8년의 축으로 나누었을 때 98년 이전은 전기, 98년 이후는 후기로 구분하여 다루었다.

이 되신 분들이 기사화되어 중요한 자료로 남아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국외에서와 달리 고인이 되신 분들의 기사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김진평의 경우는 작고하신 이후로 기사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작고한 이후로도 계속 거론되는 국외 타이포그래퍼의 경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후기 중반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지난 17-8년간의 타이포그래퍼들의 지속적인 활동에 더하여 이용제, 박우혁, 김종건 등 젊은 타이포그래퍼들의 등장을 볼 수가 있고, 전기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이 거론되기 시작했으며 디지털 글꼴만이 아닌 캘리그래피 등에 대한 기사도 빈번해지면서 타이포그래피의 분야의 조심스런 확장을 느낄 수 있다.

타이포그래피						
	디자인		코스마		디자인네트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1983		안상수				
1984						
1985						
1986		여홍구, 서기훈, 김남호				
1987	허버트 바이어, 허브루발린 폴랜드,	석금호,				
1988	캐서린 맥코이, 데이비드					

- 9) 1993년도에는 외국 타이포 잡지에서 다룬 디자이너들을 월간디자인에서 기사화 했는데 이중 타이포그래퍼만 선택하여 자료화했다.

	프레이					
1989		정병규		안상수		
1990		김진평, 윤영기, 한재준, 안상수				
1991		서기훈	네빌 브로디			
1992	허브루발린, 네빌 브로디	정병규,	엘 리시츠키, 허브루발린			
1993	찰스 앤더슨, 네빌 브로디, 티보어 칼멘, 허브루발린, 폴랜드					
1994		김진평				
1995	도다 쓰도무	박효신, 서기훈, 윤영기,				
1996	데이비드 카슨 폴랜드,					
1997	브래드베리 톰슨, 요셉-물러 브로크만					
1998	솔바스					김진평, 안상수, 한재준
1999	조나단 반브룩, 데이비드 크로우, 아사마 가즈미				헤르만 자프	
2000	스티븐 페럴, 데이비든				조나단 반브룩,	

	카슨, 네빌 브로디				윌리엄 해럴드 웅	
2001	조나단 반브룩					
2002	마틴 베네츠키, 카일쿠파,	안상수				
2003		조의환, 석금호, 홍동원			조나단 반브룩, 스테판 사그마이스 터, 볼프강 마인가르트, 카를로스 세규라, 볼프강 바이네르트, 베르너 예커, 우베 뢰쉬, 피터 앤더슨, 장-비노 레비, 필립 아펠로와 네빌브로디,	소현 정도준, 이용제
2004	조나단 반브룩, 스테판 사그마이스터	박우혁, 김종건, 이경배				박우혁, 이용제
2005	헬무트 슈미트				게일 앤더슨, 로베르 마쎅, 브루스 마우, 라슬리 모호이 너지,	조경은, 김형진, 윤선일, 김태현
2006	솔바스,	이상철				황병삼,

	얀 치홀트,					이용제, 강병인, 송호성, 오병운
2007	스티븐 헬러, 아사바 카즈미,	이용제2, 김태현			장 프랑수아 포르세	석금호,

<표 2> 연도별 기사화된 국내외 타이포그래퍼

2.3.2. 국내외 타이포그래퍼 활동 지역

<표3>은 디자인 잡지에서 다룬 타이포그래퍼들의 현재 활동 지역 별로 분류한 것이다. 13개국의 총 56명의 타이포그래퍼가 11개국에서 활동을 했거나 현재 활동하고 있다.

근래 들어 유럽과 미국을 주 활동 무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출생지가 다르더라도 네빌 브로디나 슈테판 사그마이스터, 카를로스 세규라 등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수를 차지한다. 혹은 자신의 출생지를 포함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활동하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 네빌 브로디의 경우 영국과 독일을 왕래하며 활동하고, 헬무트 슈미트는, 스위스, 독일, 스웨덴, 캐나다, 일본 등지에서 활동을 하고 현재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유럽이나 미국 등으로 유학을 다녀온 후 국내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타이포그래퍼	수
독일	볼프강 바이네르트, 우베외쉬, 헤르만 자프, 얀 치홀트, 네빌 브로디 (영국)	5
러시아	엘 리시츠키	1
말레이시아	윌리엄 해럴드 웡	1
미국	허브루발린, 솔바스, 폴랜드, 브래드베리 톰슨, 스티븐 페럴, 데이비드 카슨, 마틴 베네츠키, 카일 쿠퍼, 게일 앤더슨, 스티븐 헬러, 카를로스 세규라 (쿠바), 슈테판 사그마이스터 (오스트리아), 모호이 너지 (헝가리)	13
스위스	요셉-물러 브로크만, 볼프강 바인가르트, 베르너 예커, 장- 비노레비	4
영국	조나단 반브룩, 데이비드 크로우, 피터 앤더슨	3
오스트리아	허버트 바이어,	1
일본	도다 쓰도무, 아사바 가즈미	2
캐나다	브루스 마우	1
프랑스	필립 아펠로와, 로베르 마쎁, 장 프랑수아 모르세	3
한국	안상수, 정병규, 김진평, 한재준, 윤영기, 조의환, 석금호, 홍동원, 이용재, 박우혁, 김종건, 이경배, 조경은, 김형진, 윤선일, 김태현, 이상철, 황병삼, 강병인, 송호성, 오병운, 헬무트 슈미트 (오스트리아, 독일국적)	21

<표 3> 국내외 타이포그래퍼들의 활동 지역 (()의 국가명은 출생지임)

2.3.3. 국내외 타이포그래퍼의 활동 분야

<표4>는 디자인잡지에 게재된 최근 25년간 국내외 타이포그래퍼들의 활동영역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잡지 기사에서 다룬 인물은 국외 타이포그래퍼 34명, 국내 타이포그래퍼 22명으로 총 56명이 활동하는 분야를 정리하였는데, 분야로는 로고 타입디자인¹⁰⁾, 폰트, 캘리그래피, 편집디자인, 영상디자인, 광고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평론, 전시, 교육 총 10개 영역으로 나누어 잡지에서 다른 타이포그래퍼들의 활동분야를 정리했다.

타이포그래퍼들의 활동 영역은 최대 8개 영역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는 타이포그래퍼가 있는 반면에 한정된 영역에서만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타이포그래퍼도 소수지만 찾아 볼 수 있다.

인물	로고	폰트	캘리	편집	영상	광고	일러스트	평론	전시	교육
국외										
게일 앤더슨				●		●			●	●
네빌 브로디	●			●	●	○			●	
데이비드 카슨				●	●					▲
데이비드 크로우				●						●
도다 쓰도무				●	●					
로베르 마쎁				●					●	
마틴 베네츠키				●						●
모호이너지 (모홀리나기)		●		●	●	●	●	●	●	●
베르너 예커				●					●	●
볼프강 마이네르트				●	▲	▲				●
볼프강 마인가르트				●					●	●
브래드베리 톰슨	●	●		●						●
브루스 마우				●					●	●
솔 바스	●			●	●	●				
슈테판 사그마이스터				●	○	▲			○	●
스티븐 페릴		●		●					●	●
아사마 가즈미			●	●	●	●			●	
안 치홀트		●		●						●
엘 리시츠키				●			○			●
요셉-플러 브로크만				●		●	▲		●	●
우베뢰쉬				●					●	●
윌리엄 해럴드 웡	●	●		●					●	
장 프랑수아 포르셰		●		●						●
장-비노 레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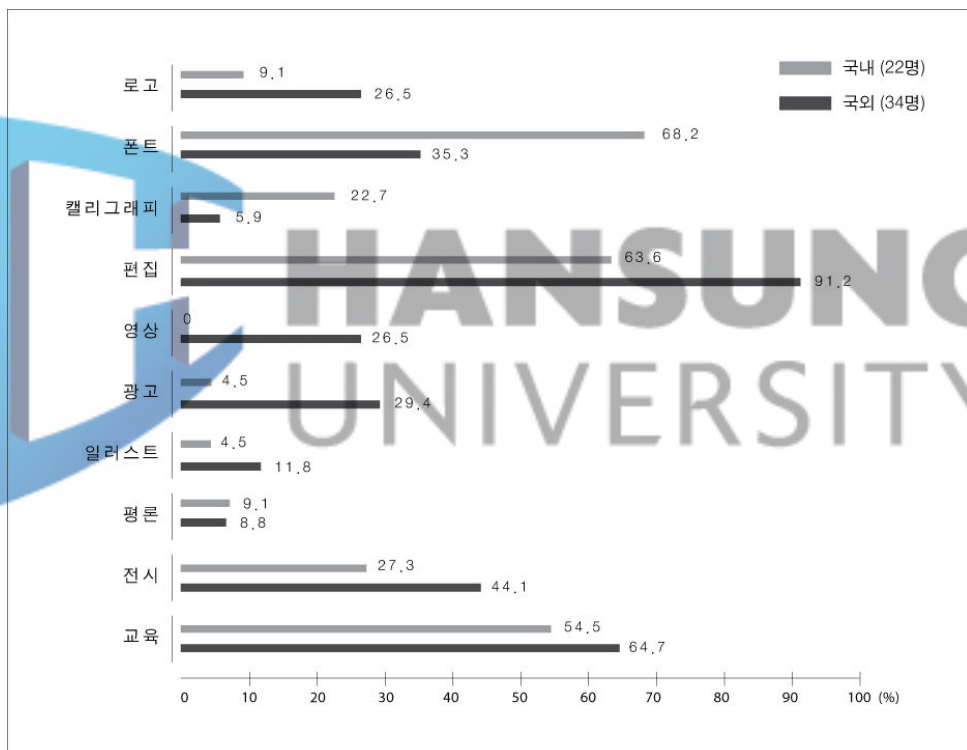
10) 로고타입 디자인 영역에서는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로고 타입은 포함하지 않았다.

조나단 반브룩	●	●		●	●	●	○	●	●	▲
카를로스 세규라		●		●		▲				
카일 쿠퍼	●				●	○				▲
폴 렌드	●			●		●	●	●		●
피터 앤더슨		●		●	●	●				
필립 아펠로와				●					●	
허버트 바이어		●		○		●	●			●
허브루발린	●	●		●		●				●
헤르만 자프	●	●	●				●		●	●
헬무트 슈미트				●						●
국내										
강병인			●	▲						●
김종건		●	●				●			●
김진평	●	●		●						●
김태현	●	●		●					●	
김형진		●		●				●		
박우혁		●	●	●					●	●
서기훈				●					●	●
석금호		●		●					●	○
소헌 정도준			●						●	
송호성		●		●		●				
안상수		●		●					●	●
오병운			●							●
윤선일		●								▲
윤영기		●				▲				●
이경배		●								
이상철				●						
이용제		●		●				●	○	●
정병규				●						●
조경은				●						
조의환		●		●						
한재준		●		○					○	●
홍동원		●		●						●

<표 4> 국내외 타이포그래퍼의 활동 분야

(●: 잡지계재 ○: 잡지 외 계재 ▲: 과거엔 활동 했으나 지금은 활동하지 않는 활동 인물 순서는 가나다순)

국내 타이포그래퍼의 경우 주로 폰트디자인, 캘리그래피, 편집디자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역적이고 분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 교육자로서 인재양성에 힘쓰고 있었다. 국외 타이포그래퍼들의 경우, 대부분 편집디자인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지만 편집디자인 뿐 아니라 영화, 광고, 일러스트 등의 다양한 영역 속에서 각자의 타이포그래피 스타일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적 폰트를 만들기도 했다. 심지어 박물관에 작품이 전시되는 디자이너들도 많았다.



<표 5> 타이포그래퍼의 활동분야 비율

<표 5>는 타이포그래퍼의 활동 분야를 그래프화 한 것이다.

로고를 만드는 디자이너는 국내 9.1 %, 국외 26.5 %로 약 3배의 차이를 보

인다. 본문용 서체와 장식용 서체를 포함한 폰트를 만드는 디자이너는 국내 68.2 %, 국외 35.3 %로 국내 타이포그래퍼들이 폰트 만드는 일에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을 알 수 있다.

편집 디자인 부분에서는 국내와 국외 모두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국내 63.6 %, 국외 91.2 %로 국외 타이포그래퍼들은 거의 대부분 편집 일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타이포그래퍼들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영상 디자인 분야에서는 기사로 다뤄진 국내 타이포그래퍼들이 없으며, 국내 타이포그래퍼들의 영역을 한정지을 수 있는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와는 반대로 국외 타이포그래퍼들의 경우 26.5 %가 영상 디자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광고 디자인 부분은 국내 4.5 %, 국외 29.4 %, 일러스트 디자인 부분은 국내 4.5 %, 국외 11.8 %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평론 부분에서는 국내 9.1 % 국외 8.8 %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 스티븐 헬러가 말했듯이 디자이너가 아는 디자이너를 평가한다는 것은 힘든 것이다. 그 이유에서 인지 대부분의 평론은 정부의 디자인체계나 문화적이거나 법률적인 면에서 혹평 혹은 악평을 하기도 한다.

전시는 국내 27.3 %, 국외 44.1 %로 국내외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많은 타이포그래퍼들이 전시를 통해 자신의 스타일이나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교육 부분에서도 국내 54.5 %, 64.7 %로 국내든 국외든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3.기사분석을 통한 타이포그래피 환경 변화

3.1. 타입

폰트 실무 분야의 변화 살펴보면 97년 이전에는 정부나 기업, 대중을 상대로 새롭고 다양한 폰트를 상품화하는 윤디자인, 산돌 등 폰트회사들이 소개되고 폰트산업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확산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컴퓨터의 대중 확산과 기능 향상으로 인해 작업은 수월해졌지만 디지털 폰트의 제작과정은 과거의 아날로그 폰트 제작과는 달리 훨씬 복잡하고 까다로운 공정을 거쳐야 하는 디지털 작업의 효율성에 관심이 증대했다.

후반기에는 신문사들의 서체와 레이아웃의 변화로 진화된 모습을 기사화했고, 전용서체의 가치에 눈을 뜬 기업들이 본문서체가 포함된 전용서체를 기업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중요요소로 인식해 전용서체 붐을 일으키기도 했다.

타입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컴퓨터 등 표현기술과 표현매체의 변화에 의한 디지털화에 따른 변화와는 역으로 아날로그적인 캘리그래피가 큰 관심을 얻고 있는데 이전 시기가 한글의 기계화에 치중하고 있고, 기계화에 따른 네모꼴, 탈네모꼴 글자에 대한 논쟁에서 에너지를 소진하였다면 이후는 관심의 폭과 분야가 눈에 띄게 다양해짐과 함께 깊어졌다. 한글의 관심이 오히려 커지면서 한글의 조형적 실험과 더불어 기계화가 아닌 캘리그래피에서 한국적 디자인을 모색했다. 이는 서예를 전공한 김종건의 등장으로서 영화포스터로 쓰인 캘리그래피가 시너지 효과를 얻은 것으로 사료된다.

타입에 관련된 교육을 다룬 기사를 살펴보면, 97년도 이전에는 교육관

런 기사는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 98년 이후 조금씩 ‘교육’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이는 대학 내에 한글 관련 소모임이 생겨나면서부터이다. 홍익대 ‘한글꿀 연구회’의 경우에는 1992년 당시 다섯 명의 학생들로 이루어진 모임이었고, 서울여대 ‘한글아씨’의 경우에는 1999년에 세 명으로 시작된 모임이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한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전문적인 국어학의 영역과 디자인 영역의 중간에서 그 둘을 중재하는 힘든 고충을 안고 있는 ‘한국글꼴개발원’에서도 한글글꼴에 대한 지속적인 육성 방안 제시와 꾸준한 활동으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2003년 9월 이후로는 교육적인 영역이 다뤄지지 않는데 이는 요즘 어느 한 분야에 속해 있기보다 국내외 간의 교류와 다른 영역의 접목으로 인해 타이포보다는 타이포그래피 영역에 교육적인 측면이 더 깊을 것으로 사료 된다.

타입의 전시 관련 변화에서는 한글꼴 공모전, 캘리그래피 공방,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 등으로 한글의 관심이 높아졌고 그에 따라 전시와 이벤트 등이 늘었다. 또한 새로운 글꼴에 대한 발표나 혹은 온라인상의 전시 또한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한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외국에서의 한글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소모임이나 동아리 활동들도 많아지면서 그에 따른 전시회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5년간 타입의 평론·이론·담론을 살펴보았을 때, 전반기에는 한글 제작과 사용상의 문제점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 기사가 많았다면 후반기에서는 좀 더 국제적이고, 자세한 내용들이 다뤄졌다.

영문폰트를 특집으로 다룬 것은 국내에서도 영문폰트를 사용할 일이 많아졌으며, 그에 따라 수요와 관심이 높아진 것이라 분석했다. 혹은 국제화되는 시대에 영문폰트를 알아야 하기에 관심을 유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한글·한글디자인·디자이너’라는 제목으로 국내 타이포그래퍼가 평론, 이론, 에세이의 기사를 특집으로 썼다. 한글의 기계화에 따른 문제점과 미래에 대한 제언 등을 다루었다.

2006년 특집에는 일본 타이포그래퍼들이 본 서체의 역사에 대해 특집 기사를 다루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활자판과 사진식자기 등을 빌려 쓰고, 몇몇 서체의 저작권이 일본에 있는 사실을 볼 때,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사라고 판단된다.

타입의 저작권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면, 단 1회의 언급으로 그쳤던 저작권에 대한 내용이 국외 사례를 바탕으로 필요와 관심을 이끄는 모습은 그동안 무관심했던 저작권에 대한 내용이 사람들의 인터넷 사용증가로 인해 고유한 창작결과를 보호해야 한다는 자연스런 움직임이다.

특허청이 디자인 보호법으로 글자꼴 자체를 보호한다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기업이 아닌 일반 사용자가 불법 복제하여 폰트를 사용한다고 해도 그것을 제지할 근거가 없다. 디자인 보호법은 사용자를 제지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다루는 기사가 소개되고 있는 것이다.

오랜 기간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던 글꼴 디자인의 저작권법상의 보호 문제는 생각처럼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가계의 첨예한 입장들이 하나의 해결점을 모색하는 데는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확고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충분한 논거 확보, 대부분의 사람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여론의 조성 등 꾸준한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¹¹⁾

2005년 7월 1일부터 디자인보호법으로 글자꼴을 보호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사를 통해 많은 저작권에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11) 이영록, 한글꼴 디자인의 법적 보호, 월간 디자인, 1999.05

3.2. 타이포그래피

타이포그래피의 실무 관련 변화를 살펴보겠다.

텍스트와 이미지의 재현을 위한 대량생산 기술과 복제 기술의 발전과정에서 발전해온 그래픽 디자인 분야는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축적해온 지식과 전통을 현재의 새로운 매체에도 적응시켜 나가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텍스트의 재현 및 이를 통한 새로운 소통방식의 창출 목적으로 하는 타이포그래피 디자인¹²⁾이 더욱 주목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패션, 제품, 광고, 영상, 조형물, 인쇄 등 다른 영역과 타이포그래피와의 접목은 세계 사람들에게 큰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디지털매체간의 경계가 모호해 지고 국내외 간의 교류로 인해 다양한 영역과의 접목이 많아 진 것이라 추측된다.

또한 국내외 회사가 기사에서 소개되었는데 국외 회사 소개 기사는 우리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국외 디자이너들은 과연 어떠한 스타일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함이고, 국내 회사 소개 기사들은 회사가 어떤 변화를 거치고, 새롭게 태어난 회사는 어떤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기사가 소개된 것으로 판단된다.

타이포그래피 교육 관련 변화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디자인 대학에서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교육은 대부분 편집디자인 교육과정의 일부로 다루어져 왔다. 편집디자인은 많은 양의 정보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기능성과 전통적인 관례들만이 강조되어 왔다. 98년 9월호 ‘디자인’지, ‘개성적 타이포그래피의 발견’ 기사에서 이러한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타이포그래피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없게 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상명대학교에서는 1992년 10월에 소개된 타이포그래피와 일러스트레

12) 타이포그래피의 전통과 실험, 디자인네트, 1998.11

이션을 합친 ‘타이포스트레이션’ 교육방법은 지금까지도 수업의 한 방법으로 진행 되어오고 있다. 21세기 초 중반에 국외 학교들의 소개로 국외 교육의 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젊은 교수들에 의한 새로운 시도와 컴퓨터 기술 발전, 다양한 서체 개발 환경 이 새로 소개되었으나 처음부터 로마자 중심의 타이포그래피에 한글 디자인을 끼워 맞추는 식의 교육과 기본 레터링 교육 없이 활자를 부리는 데에만 연연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¹³⁾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든지, 바람직한 타이포그래피란 국적이 문제가 아니라 형태와 의도에 대한 감수성이다.” 라고 폴 랜드가 말한 것처럼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디자인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의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계 디자인 교육의 대세라고 할 때 우리의 경우도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¹⁴⁾는 것을 시사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디자인 경쟁의 시대 이른바 디자인 전쟁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 수준에서 디자인에 대한 올바른 현실인식이 요청됨을 보여준다고 판단된다.

타이포그래피 전시 관련 변화를 살펴보면, 98년 이전에는 단 2건의 기사만 다뤄졌을 뿐이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보아 짐작하건데 90년대 초중반에는 전시라는 부분이 대외적으로 큰 이슈를 가진 전시가 아니었다면 중요시하게 다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처음 결집된 KOGDA주최 편집디자인 세미나에서 안상수의 실험시대 선언은 이러한 한 목소리를 내기까지 오늘날 한국 타이포그래피를 이끌고 있는 인물들이 한글에 대한 많은 연구와 서구 타이포그래피의 모더니즘을 탐구하여 그 개척정신에 경도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3) 타이포그래피 교육, 디자인네트, 1998.10

14) 정시화, 『산업 디자인 150년』, 미진사, 1991, p303

이는 전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폰트관련 전시와 같이 인터넷의 발달과 유학과 디자이너로 인한 활발한 교류가 있었고, 또한 잡지에서의 회사들의 광고가 많아지고 기사 또한 전기에 비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었다.

타이포그래피 평론·이론·담론 관련 변화를 보면, 1998년 이전에 다뤄진 기사를 보았을 때, 국내에서는 급증하는 인쇄 매체에 따른 문제점을 자주 다루고 있다. 이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생기는 문제와 미래에 대한 평론을 다루고 있다. 한국에서 디자인 평론은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데 디자인평론은 미국에서도 활발하지 않다. 평론가 스티븐 헬러는 디자인 평론이 활발하지 못한 이유는 돈이 안 되고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잘 알고 있는 사람이나 친한 디자이너를 비평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또한 기호학에 대해 1년 이상 기사를 다루고 있는데, 기호학이 타이포그래피를 다루는데 기호학적 접근은 시각 커뮤니케이션을 의미의 단순한 전달이나 소통으로 보지 않고, 의미의 산출과 교환이라고 보는 중요한 부분임을 얘기해주고 있다.

3.3. 타이포그래피

타이포그래퍼들에 관련된 기사를 살펴볼 때 국외 타이포그래퍼의 경우는 전기는 역사 속에서 만날 수 있는 타이포그래퍼들을 중심으로 소개되었고, 후기는 네빌 브로디나 카일 쿠퍼 등이 거론되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작가나 한국에서 세미나나 전시를 통해 이슈화 되고 있는 인물들의 기사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90년대에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그 매체에 맞는 글자꼴의 변화가 시급했고 관심이 증가됨이 그 원인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기에는 국외 타이포그래퍼들을 주로 소개하고 있으나 2002년 이후 눈에 띄게 국내 타이포그래퍼들의 기사가 증가하는 것은 한글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이는 전서관련 내용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국외에서 활동하는 타이포그래퍼의 경우 미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1920-1930년대에 디자이너를 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바우하우스가 그 대안, 즉, 미술을 산업으로 변환시켜줄 것으로 기대했었다. 세계 2차 대전이 터진 후 세계대전을 피해 유럽의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미국(시카고)으로 건너와 미국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미국으로 망명한 대부분의 예술가들에 의해 미술학교들의 조형 교육이 유럽식으로 바뀌었다. 바우하우스의 기능주의 데 스틸의 단순성, 비엔나 공방의 엄격함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유럽식 교육을 받고 배출되기 시작한 젊은 디자이너들이 차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¹⁵⁾ 그 이후로도 타이포그래픽에 있어서 혁신적인 생각을 갖는 새로운 디자이너들이 생겨나고 발전하면서 미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추론된다.

이와는 반대로 말레이시아, 쿠바 등의 나라를 기사화 하는 것을 볼 때, 지역적인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게 되는 모습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외 타이포그래퍼의 활동 분야를 살펴보면 국내 타이포그래퍼들은 대부분 편집디자인, 폰트디자인 등 일정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국외 타이포그래퍼들의 경우 문화와 환경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진보하고, 확장시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즉 글자라고 하는 표현 도구를 기본으로 하여 콘텐츠의 영역, 매체의 영역의 경계가 사라지고 그 속에서 시대의 변화

15) 허브루발린, 세기의 디자이너, 월간 디자인, 1987.05

에 따라 새롭게 생산되고 발전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분야에만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에 대해 비판적이지는 않다. 과거에 광고나 일러스트 등의 영역에서도 활동을 했지만 현재 동시에 일을 하지 않을 뿐이다. 그들의 생각은 다만 달라진 것 하나 없이 오래된 꿀을 새 꿀통에 담는 식의 디자인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국내 타이포그래퍼들이 국외 타이포그래퍼들 보다 활동범위가 적은 것은 물론 한 가지 분야를 집중적으로 활동 할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활동범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슈화 되지 않거나 기사화 되지 않은 것이라 짐작해 볼 수도 있다.

언제나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는 디자이너 덕에 예술은 더 대범해지고 글자는 때론 더욱 어리석어지며 레이아웃은 더욱 더 힘들어 진다. 하지만 B급영화가 있어 영화산업이 발전하듯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시도하는 디자이너가 있기에 타이포그래피 발전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표 4>를 봤을 때, 분명 타이포그래피가 1차적인 인쇄 작업에만 국한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영상, 광고 등 다양한 방면에서 쓰이고, 활용 분야가 넓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글 캘리그래피는 영문 스크립트체에서 보이듯이 글자를 연결 한다 라기 보다 글 한 자 한 자의 이미지성이 더 강하다. 각자의 획 수가 차이가 나서 들쭉날쭉한 심장 박동 주파수와 같은 형상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¹⁶⁾ 국내에서 캘리그래피가 국외에 비해 비율이 높은 것은 영화산업으로 인해 유행한 캘리그래피가 기사화에 큰 영향을 준 것이라 판단된다.

디자이너는 그 나라의 문화나 사건, 이슈 등 시대 상황과 지역적 환경

16) 필기에서나 서체에 있어서 구조는 드러나는 외형적 모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완벽한 초, 중, 종성의 원리는 세계적으로도 유일한 것이므로 그만큼 특이성을 만들어낼 확률이 높은 것이다. 또 거기에 한글자모의 기하학적인 조형 형태적 측면도 덧붙여진다. 서구 알파벳이 기하학적이라고 하지만 한글은 하나 하나가 정확한 기하형태들이다. 따라서 비단 손글씨체뿐만 아니라 기존 서체 개념에서 정확하게 기하형태를 구사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그것이 과거 탈네모폴서체로부터 시도되어 온 전통이기도 하다.(이용제, 타이포그래피 이용제, 디자인네트, 2002.09)

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국외 타이포그래피의 경우 2001년 미국의 9.11 테러 이후에 감성적 디자인으로 영역을 바꾸거나 전쟁반대 평화주의를 외치는 디자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조나단 반브룩이 만든 서체 중 미사일 이름을 딴 <엑소셋>이 대표적이며 이밖에도 <바코드부시>를 이용한 <기업 파시스트>¹⁷⁾등이 소개되었다.

국내에서 영화산업으로 인해 캘리그래피에 관심이 늘어나고, 서예가들이 캘리그래퍼로서 새로이 등장하는 일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17) 기업 파시스트, 2003(Corporate Fascist), 조지 부시에게 히틀러의 콧수염을 붙인 기존의 작품에다 ‘기업 파시스트’라는 제목을 달았다. 부시의 명백한 정치적 실천 과제를 밝히는 작품. 그 실천 과제란? “자신을 백악관에 입성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을 대주었던 수많은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 이라고 작가는 말한다.

4. 결론

지금까지 25년간의 디자인 잡지에서 다루었던 타이포그래피 관련 기사를 토대로 그간의 타입과 타이포그래피가 어떻게 발전되어왔고, 어떠한 환경변화를 겪어 왔는지 살펴보았다. 1983년부터 2007년까지 25년간 디자인 잡지의 타이포그래피 관련 기사를 통해서 타이포그래피의 다양한 면모와 그 흐름을, 한 편의 글에서 모두 설명하기란 불가능 할 것이다. 타이포그래피 뿐 아니라 모든 디자인 영역이 개인적인 관심과 표현결과가 아니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그 시대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비교적 어떠한 내용이 다뤄졌고, 중요한 발전요소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발전들은 더 큰 역사적 맥락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 전반적인 결론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를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타이포그래피 관련 기사가 늘어났다.

컴퓨터의 발달로 인터넷의 경계가 국내외적으로 넓어지고 그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98년 이전 보다 타이포그래피 관련 기사뿐 아니라 타이포그래피의 기사 양이 현저히 늘어났다. 각국의 문화, 사건, 이슈 속에서만 그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화 되고 글로벌해지는 문화로 점차 변해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둘째, 디지털 폰트가 등장했고 활자법적보호에 대한 기사가 증가했다.

손으로 혹은 타자기나 사진식자에 의해 만들어진 활자들이 컴퓨터의 정교하고 편리함 속에서 예전과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디지털 폰트가 등장했고, 그에 따른 문제로 폰트디자이너들이 법적으로 활자를 보호해야한다는 주장과 함께 글자체 보호법이 생겨났지만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캘리그래피 기사가 증가했다.

디지털 시대와는 역으로 아날로그적인 캘리그래피가 관심이 증가 하였는데, 디지털 속성의 불완전성을 아날로그적 감성을 담아 보완함으로써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타입과 다른 영역과의 결합으로 새로운 영역이 생겨나고 국제적인 전시가 기사화 되고 있다.

2차원적인 인쇄물에서 벗어나 다른 영역과의 결합으로 문학, 패션, 제품 등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외국과의 교류로 인한 전시와 수업 또한 확산되고 있다.

다섯째, 이 시대를 논하는 기사가 늘어나고 이론적인 기사가 증가했다.

90년대 디지털시대가 열리면서 급증하는 인쇄 매체나 일부 역사적 개념이 미흡한 디자이너들에 의해 잘못 해석된 디지털 타이포그래피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한 평론이 늘어났다. 또한 이 시대에 필요한 타이포그래피의 의미 있는 이론과 함께 타이포그래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여섯째, 타이포그래퍼들의 다양한 활동을 다루는 기사가 증가했다.

국내 타이포그래퍼의 경우 지역적이고 분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한 지역 안에 한정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국외 타이포그래퍼들의 경우 한 분야에 국한 되지 않고 다양한 활동 영역과 넓은 교류의 폭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타이포그래피의 역사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누락되거나 기사, 사건 등이 미약할 수도 있으나 잡지에 게재된 기사에 충실하여 타이포그래피 관련 변화 내용을 짚어 보고자 했다.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이포그래피의 가치 체계나 분야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인식 없이 그저 세계 디자인계의 유행만을 숨 가쁘게 따라온 결과 우리는 자생력이 있는 창조적 디자인 문화를 형성하지 못해왔고, 속도를 의식한 나머지 내용과 질을 소홀히 해온 것이 사실이다.¹⁸⁾

한글은 서양보다 200여년이나 앞선 것으로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시대에 대한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발전은 아직도 미흡하다.

한글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분석 및 적용의 폭을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 필요하고, 또한 앞으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더 나은 활판한 타 영역과의 교류와 일 방향적인 디자인이 아닌 양방향 소통을 통해 타이포그래피의¹⁹⁾ 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언어는 지역적이지만 타이포그래피는 국제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기본적인 매체이고, 모든 디자인의 기초로서, 그리고 다양한 매체와 영역에서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손글씨²⁰⁾가 표현의 다양성이나, 단지 유행심리로만 쫓지 말고 시대문화를 반영하되 그 자체로서 조형성을 갖춘다면 충분히 자생적인 생명력을 가질 수 있을 것²¹⁾ 이다. 아직은 디자인의 제한적인 표현 도구로서만 사용되는 캘리그래피가 앞으로는 하나의 독립된 디자인 영역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보여 지고 있다고 본다.

디지털시대에 대량생산과 획일화된 디자인은 평범함을 거부하고 남들과 다른 나만의 것을 원하는 현대인들에게 아날로그적인 디자인을 부

18) 강현주, 그래픽 디자인에서 텍스트“읽기”와 “보기”,디자인네트.1998.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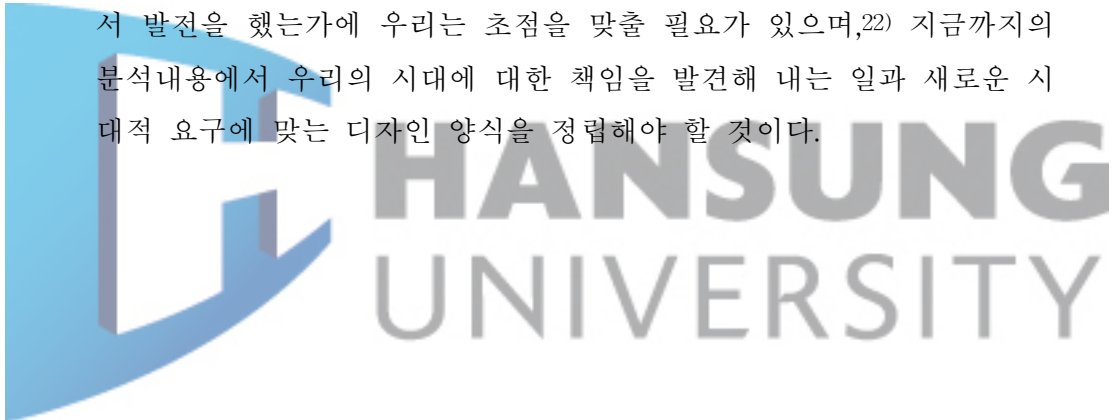
19) 원유흥, 타이포그래피란? 타이포그래피 그리고 타이피쉬(Typish),
<http://magazine.jungle.co.kr>

20) 손으로 쓴 글자. 과거 글씨는 붓을 사용하여 썼으나 현재는 다양한 도구로 쓴다.

21) 이병주, 손글씨의 변화와 한국적 디자인의 출현, 디자인네트, 2003.09

르고 있다. 앞으로 새로운 시대에 대한 디지털 디자인이 아날로그적 디자인과 절묘한 조화가 이루어 질 것이며, 이제 타이포그래피는 단순히 글자체의 운용체계에서 벗어나 풍부한 상상력을 포함한 사람들의 사상을 전달하는 정보 전달의 기능까지 확대해 갈 것이라 사료된다.

신 타이포그래피 혁명가 안 치홀트는 ‘시대정신’, ‘시대에 대한 책임’으로 디자이너가 가져야 할 책임을 지적했다. 그는 시대적 상황과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발견된 문제들을 시대언어로 풀고자 노력했다. 시대와 호흡해서 그 시대의 문화를 창조해야 하는 디자이너들에게 이러한 모습은 가치 있는 본보기다. 즉, 그가 말한 것처럼 무엇이 정답이냐가 아니라 타이포그래피가 그 당시 상황과 그 시대정신을 얼마나 반영하면서 발전을 했는가에 우리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²²⁾ 지금까지의 분석내용에서 우리의 시대에 대한 책임을 발견해 내는 일과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는 디자인 양식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22) 박지나, 김지현, 「‘19세기말-20세기 초 전환기에 나타난 시대정신과 타이포그래피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Vol8, No.1, 2007, p322

참고문헌

<단행본>

유정미, 『잡지는 매거진이다』, 효형출판, 2002

정시화, 『산업 디자인 150년』, 미진사, 1991

잡지총람Ⅱ, 서울: 한국잡지협회, 1982

<논문>

박지나, 김지현, 「19세기말-20세기 초 전환기에 나타난 시대정신과 타이포그래피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Vol8., No.1, 2007

최지은, 「디자인 전문지의 편집디자인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2007

<정기간행물>

디자인 1980-2007

디자인네트 1998-2007

코스마 1982-1997

<인터넷 자료>

권으뜸, 당신의 언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http://magazine.jungle.co.kr>

원유홍, 타이포그래피란? 타이포그래피 그리고 타이피쉬(Typish),

<http://magazine.jungle.co.kr>

부 록

1. 타이입 관련 25년간의 잡지기사 리스트
2. 타이포그래피 관련 25년간의 잡지기사 리스트
3. 타이포그래피 관련 25년간의 잡지기사 리스트

<타입 관련 25년간의 잡지기사 리스트>

1983-1997		년도	1998-2007	년도
실무	매킨토시를 이용한 헤드라인용 '윤'체	90.10 월간.디	타이포그래피-서체개발의 활성화	99.12 월간.디
	한글 활자체 그 개발과 실용의 문제	91.10 코스마	대중과 함께하는 디자인마켓 플레이스를 꿈꾼다. 윤디자인연구소 윤영기	02.11 디.네트
	한글 기계화와 탈네모틀 글자	91.10 코스마	<영화포스터 꽃피는 봄이오면> 실장 김혜진	03.09 디.네트
	한글 전산서체개발 현황과 그 방향	91.10 코스마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새로운 경향과 가능성	03.09 디.네트
	한글 글자꼴 연구 어디까지 왔나?	92.10 월간.디	인터뷰01. 디지털 시대의 감성코드, 손맛으로 표현한다. 필묵 김종건	03.09 디.네트
	한글 글자꼴 디자인의 명암	92.10 월간.디	좌담... 기능이 끝나는 지점에서 문자의 조형성이 시작된다.	03.09 디.네트
	한글타이포그래피 현주소	92.10 월간.디	북디자인의 숨씨체, 그 낮익은 새로움 (북디자인)	03.09 디.네트

전자출판시대의 한글꼴디자인	92.10 월간.디	인터뷰04. 복디자인 독창적인 감성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이 필요. 복디자인어 안지미	03.09 디.네트
문화부 개발 교과서용 한글서체	92.10 월간.디	캘리그래피로 표현한 인간적인 따뜻함	03.09 디.네트
폰트샵이 자리잡아 가고 있다	92.10 월간.디	폰트디자인 (손글씨의 변화와 한국적 디자인의 출현)	03.09 디.네트
매킨토시를 이용한 서체 개발 사례	92.10 월간.디	활자공간의 조합형 한글폰트 < 秀 >	04.05 디.네트
국내신문 타이포그래피 변천사	92.10 월간.디	서울디자인을 제안합니다	04.09 디.네트
전자출판과 한글꼴 개발상에서의 타이포그래피 문제점	93.11 코스마	기업전용 한글서체개발. 과급효과기대, 산돌 커뮤니케이션 석금호 대표	05.01 디.네트
		WI에서의 타이포그래피의 중요성	05.04 디.네트
		나는 네모틀 벗긴 글자꼴이 자꾸 좋다	05.08 월간.디
		활자가 살아 움직인다	05.09 월간.디
		산돌창립21주년 - 한국서체개발 20년사의 총결산과 미래비전선포	05.10 디.네트
		일본타이포그래피 11인 공동기획연재08 에릭길과 길산스	06.08 디.네트
		디자인을 소재로 한 영화들, 영화로 만들어진 '헬베티카'	07.02 월간.디
		'조선일보명조' 서체 무료 배포-기업의? 디자인 자산	07.04 월간.디

		무료 배포해	
		신문이여 진화하라-보수디자인의 대표 논객 '신문'이 허물을 벗는다	07.05 월간.디
		우리글 닷컴, 웹 본문용 서체 '우리바탕'발표-스크린에 부활한 바탕(명조)체	07.08 월간.디
		기업, 서체 아이덴티티에 눈뜨다(아모레 퍼시픽-아리따, 윈도우 비스타UI-맑은 고딕, 현대카드-유엔아이, 한겨레-한결, 연세대학교-연세)	07.09 월간.디
		서체가 만들어온 역사속의 아이덴티티	07.09 월간.디
		산돌, 윤디자인, 직지소프트,	07.10 디.네트
		폰트릭스,-47c,폰트뱅크	07.10 디.네트
		신문과 활자	07.10 디.네트
		디지털시대의 문자 콘텐츠	07.11 월간.디
		50주년 맞은 헬베티카-좋은 싫든 반세기 동안 큰 획을 그은 서체	07.11 월간.디
		북디자인 정병규가 리디자인한 <국제신문>	07.11 월간.디
		모니터에서 '굴림' 몰아내기가 시작된다.	07.12 월간.디
		한국, 전용서체의 가치에 눈뜨다.	07.12 월간.디

			신문, 디자이너를 발견하다.	07.12 월간.디
교육			한글글꼴개발원	01.09 디.네트
			홍익대 ‘한글꼴 연구회’	04.07 디.네트
			서울여자대학교 한글 타이포그래피 연구회 ‘한글아씨’	03.09 디.네트
전시			디지털 폰트의 게릴라 전, T-26 타입 파운드리	99.01 월간.디
			제1회 비박 콘그레스 네빌브로디의 강연	01.01 월간.디
			제1회 한글꼴 대상 시상식	01.01 디.네트
			제9회 한글글꼴 공모전	01.11 디.네트
			한글의 원리와 아름다움을 일본에 전한다, 한글전	01.08 월간.디
			안상수 한글상상'전-한글 타이포그래피를 통한 도전과 열정	02.07 월간.디
			동양의 감수성을 담은 디자인 <제1회 캘리그래피 디자인전2003>	03.06 디.네트
			제11회 한글글꼴공모전	03.11 디.네트
			한울전 3.0 <한글공감>	04.01 디.네트
			손글씨의 독특한 멋,	04.07 월간.디

			캘리그래피 전-필묵주관	
			<안상수 Picks...다다>	04.01 디.네트
			<한울전 4.0>	04.01 디.네트
			한글꼴을 살리자. 비탁 타이포그래피 심포지엄, '한글다다'세미나 개최	04.11 월간.디
			캘리그래피 작가 4인전 四春記	06.04 디.네트
			서울디자인페스티벌 2006에 꽃을 피운 43명의 디자이너-특별전 '디자이너스 랩'과 '한글, 꽃을 피우다' 참여디자이너	06.12 월간.디
			제2회 한?일 타이포그래피 포럼 개최한 석금호 대표	07.04 월간.디
			<금누리+안상수=?>전시 연 금누리?안상수-한글의 창제 원리에 맞는 글꼴을 만들어야 한다	07.01 월간.디
평론 이론 담론			'한글'을 통해 다시 바라보는 관계와 소통 <금누리+안상수 = ? >	07.01 디.네트
	한글 타입페이스 연구 어디까지 왔나?	89.10 월간.디	우리 시대 문자의 표정들 또는 그 생태학	98.10 디.네트
	전산화 시대의 한글 활자체 디자인	89.10 월간.디	글꼴 산업의 현재와 미래	98.10 디.네트
	한글 생산에 있어서 컴퓨터의 활용 현황	89.10 월간.디	모더니즘으로의 회귀	98.10 디.네트
	글자꼴 설계를 위한 컴퓨터의 활용범위 방향	89.10 월간.디	인물로 보는 한글 서체의 계보	03.01 월간.디

타이포그래피 재료의 부족을 메워가는 노력들	90.08 월간.디	인쇄문화를 지배한 타입페이스들	03.11 월간.디
한글 활자체변천의 사적 연구	90.10 코스마	복스의 영문 서체 분류	04.01 월간.디
새로운 한글서체의 등장은 아직도 이른가?	90.10 코스마	Gill Sans, 가장 영국적인 서체	04.02 월간.디
정보화 사회에서의 한글디자인, 무엇이 문제인가?	90.10 코스마	헬베티카, 네오 그로테스크 산세리프 스타일	04.03 월간.디
디자이너가 왜 한글 기계화를 알아야 하나	91.10 코스마	악치덴즈 그로테스크, 신 타이포그래피의 전통을 잇는 서체	04.04 월간.디
한글 글자꼴 표준화작업의 올바른 방향	92.02 월간.디	발바움, 가장 독창적인 독일의 낭만주의 서체	04.05 월간.디
글꼴에 대한 관심 어디까지 확산되고 있나	93.11 월간.디	클라렌튼, 산업혁명시대에 나타난 본문용 서체	04.06 월간.디
		가라몬드, 우아하고 품격 있는 세리프 서체의 원형	04.07 월간.디
		퐁추라, 바우하우스의 정신을 실현한 서체	04.08 월간.디
		프랭클린고딕, 미국의 모더니즘을 보전하는 서체	04.09 월간.디
		센토, 서체로 느끼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04.10 월간.디
		블랙 레터, 국가와 이념의 표상이 된 서체양식	04.11 월간.디
		토론문화의 새로운 가능성, 한글다다 작가마당 · 수다마당	04.11 디.네트
		한글에 대한 발칙한 수다	04.11 디.네트

		배스키빌, 18세기에 등장한 모던한 인물의 모던한 서체	04.12 월간.디
		한글 한글디자인·디자이너 1_어디에 있는가	05.02 디.네트
		한글 한글디자인·디자이너 2_한글기계화-디자이너는 없었다	05.03 디.네트
		한글 한글디자인·디자이너 3_탈네모꼴. 한글이 완성되다	05.04 디.네트
		한글 한글디자인·디자이너 4_ 네모꼴과 탈네모꼴의 경계가 무너지다	05.05 디.네트
		한글 한글디자인·디자이너 5_가독성 실험, 무엇을 믿어야 하나	05.06 디.네트
		한글 한글디자인·디자이너 7_미래 한글 글자꼴에 대한 상상과 책임	05.08 디.네트
		한글 한글디자인·디자이너 8_기계가 '디지털'에 물려준 유산	05.09 디.네트
		한글 한글디자인·디자이너 9_한글, 이성에서 태어나 감성으로 꽃 피우다	05.10 디.네트
		한글 한글디자인·디자이너 10_한글은 무엇으로 디자인하나	05.11 디.네트
		한글 한글디자인·디자이너 11_한글 베끼기와 한글꼴 베끼기	05.12 디.네트
		한글 한글디자인·디자이너 12_좋은폰트?	06.01 디.네트
		일본타이포그래퍼 11인 공동기획연재	06.01 디.네트

		01 명조체 한자 활자 - 상해에서 일본으로	
		일본타이포그래피 11인 공동기획연재 02 명조체 - 일본에서의 개혁	06.02 디.네트
		일본타이포그래피 11인 공동기획연재 03 문자와 서적 - 19세기말 일본에 있어 최초 다국어 신식인쇄활자본의 간행과 전파	06.03 디.네트
		일본타이포그래피 11인 공동기획연재 04 상해에서 제작된 활자의 복제	06.04 디.네트
		일본타이포그래피 11인 공동기획연재 05 벤토조각기 - 일본에서의 개발 상황과 운용	06.05 디.네트
		일본타이포그래피 11인 공동기획연재 06 사진식자기의 개발과 발전	06.06 디.네트
		21세기에서 바라본 한자 <한자와 타이포그래피>	06.06 디.네트
		일본타이포그래피 11인 공동기획연재 07 부호화 문자집합 알기 - JIS한자 규격의 성립	06.07 디.네트
		일본타이포그래피 11인 공동기획연재 10 일본의 디지털 서체의 현상과 문제점 - 자유코우보가 임하는	06.10 디.네트

			기본서체	
			일본타이포그래피 11인 공동기획연재 11 베타 조합에 있어서의 일본어조판의 기본과 과제	06.11 디.네트
			일본타이포그래피 11인 공동기획연재 12 북 디자인의 서체 선택	06.12 디.네트
			하나된 한글의 울타리 <한울전 7.0>	07.01 디.네트
			세계적인 디자인 잡지의 한글 특집 <베이스라인>에 등장한 '한글'	07.06 월간.디
			윤디자인, 온라인 한글 박물관 '온 한글' 오픈	07.11 월간.디
			“따옴표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각하!”	07.11 월간.디
			서울시 서체에 대한 기대와 걱정	07.12 월간.디
			캘리그래피+북 디자인+이야기 <글씨, 책에 말을 걸다>	07.12 디.네트
저작권	타입페이스는 저작권법의 우산을 쓸 수 있는가?	89.10 월간.디	글꼴 디자인의 법적 보호	99.05 월간.디
			한글꼴창작 지원금 제정에 관한 소고	04.07 디.네트
			2005년 새롭게 시행되는 디자인보호법	05.02 월단.디
			한글·한글디자인·디자인 너 6_한글 활자꼴 보호	05.07 디.네트
			글자체디자인에 관한 법적보호에 관하여	06.02 디.네트

<타이포그래피 관련 25년간의 잡지기사 리스트>

1983-1997		년도	1998-2007	년도
실무			아크메 크리에이티브-타이포그래피로 광고한다	98.03 월간.디
			스포츠와 타이포그래피의 만남, Not Only Sport	98.05 월간.디
			모더니스트들의 이상과 유럽 디자인의 현재 (스튜디오 네트만스, 디트비 온트베르페르스, 오렌지 블루, 리파 피어스 디자인, 빌트 앤 프레이, 헤베, 팩터 디자인)	98.11 디.네트
			필립 아펠로와	99.05 디.네트
			Faydherbe/De vringer(네덜란드)	99.11 디.네트
			언어와 타이포그래피로 표현한 와이 낫 어소시에이츠의 에로틱 영상	99.06 월간.디
			베르만 예커	99.11 디.네트
			Helfried Hagenberg	00.05 디.네트
			Cyan 사이언(독일)	00.09 디.네트
			타이포그래피의 절개(홍디자인)	02.02 디.네트

		감사원, 디자인에 눈뜨다-홍디자인의 감사원<간행물발간지침서> 프로젝트	03.01 월간.디
		뉴욕아트디렉터클럽-디자 인머신	03.07 디.네트
		영화 포스터의 변화를 주도한 글꼴 디자인 (영화 포스터)	03.09 디.네트
		슬프도록 아름다운 커버예술. 마요북허	04.08 디.네트
		안그래픽스 20년, 한국 타 이포그래피의 역사를 만든 다	05.04 월간.디
		이상봉의 옷을 타고 파리로 진출한 한글	06.04 월간.디
		미디어 2.0이 창간한 <스포츠2.0>스포츠 잡지, 이미지의 힘으로 발견한다 휴대폰.'한글'을 읽다.	06.09 월간.디
		LG휴대폰 샤프인 디자이너스 에디션	07.01 월간.디
		이세영 나비대표	07.04 월간.디
		조경규의 디자인 시(時)-쇼핑은 참말로 즐러운 것	07.08 월간.디
		조경규의 디자인 시(時)-작업에 열중하는 모습은 보기에 좋지 않다.	07.10 월간.디
		선비 같은 디자이너 홍성택 -홍디자인	07.10 월간.디
		안상수: 한글자소가 잉태한 형태적 상상력으로	07.11 디.네트

			타이포,담장이,,담장이,타이포를 키우다	
			그래픽 디자인 회사 '디자인 54' 설립한 조의환	07.11 월간.디
			한글, 디자인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등극하다	07.12 월간.디
교육	실험적 타이포그래피 프로젝트들	92.10 월간.디	개성적인 타이포그래피의 발견-상명대 시각디자인학과의 타이포그래피 과제	98.09 월간.디
			타이포그래피 교육 - 한성대, 단국대, 홍익대, 동서울대, 명지전문대	98.10 디.네트
			다양한 전문 디자이너들의 집다, 와이 낫 어소시에이츠	99.10 월간.디
			헤이그 왕립 미술학교 그래픽&타이포그래피 디자인과, 네덜란드	01.01 월간.디
			라이프치히 그래픽&북아트 대학, 독일	01.01 월간.디
			타이포그래피 공방	03.06 디.네트
			사디 비평을 통한 새로운 아이디어의 산출·타이포페이스 포스터	03.08 디.네트
			서울여자대학교 한글 타이포그래피 연구회 '한글아씨'	03.09 디.네트
			출판물 만드는 디자인학과들 많아져	06.12 월간.디
전시	KOGDA주최 편집디자인세미나	90.08 월간.디	디지털 타이포그래피 디자인 컨테스트-월드 스탠다드를 생각하라	99.07 월간.디

제4회 한글 활자꼴 디자인 세미나	93.11 코스마	어울림 2000 Seoul(특집)	00.07 디.네트
		2000 세계그래픽디자인대회	00.12 월간.디
		네빌브로디 초청세미나	01.01 디.네트
		한글의 원리와 아름다움을 일본에 전한다, 한글전	01.08 디.네트
		타이포잔치가 '서울'에서 열리는 이유, 그 당위성에 대하여	01.09 월간.디
		제1회 타이포잔치-서울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01.10 디.네트
		새로운 상상으로 여는 타이포잔치	01.10 디.네트
		안상수 한글상상'전-한글 타이포그래피를 통한 도전과 열정	02.07 월간.디
		조나단반브룩 공개강좌	03.05 디.네트
		박금준+601전	03.06 디.네트
		한울전3.0 <한글공감>	04.01 디.네트
		조나단 반브룩의 그래픽 선동전	04.03 디.네트
		조나단 반브룩 초청세미나 '당신에게 진보는 무엇인가?'	04.05 디.네트
		<스테판 사그마이스터>전	04.03 디.네트

		스테판 사그마이스터, 전시 및 강연회 개최	04.04 디.네트
		제1회 비닥 타이포그래피 기행개최	04.08 디.네트
		한울전4.0	04.10 디.네트
		안그래픽스 20주년 기념식 개최	05.03 디.네트
		출판 디자인의 기념비, 펍킨북스의 70회 생일	05.07 월간.디
		서울에서 '폴 엘리먼'만나기	05.11 디.네트
		XD_10 워크숍	06.07 디.네트
		'진달래도큐먼트 02:Visual	06.08 월간.디
		Poetry-視集금강산'전 서울디자인페스티벌 2006에 꽃을 피운 43명의 디자이너-특별전 '디자이너스 랩'과 '한글, 꽃을 피우다' 참여디자이너	06.12 월간.디
		타이포그래픽 그룹전	07.01 디.네트
		타이포그래피 아카이브 '타임숍'연 박우혁?진달래	07.07 월간.디
		비닥 07:graphic design in Korea	07.09 디.네트
		<금누리+안상수=?>전시 연 금누리?안상수	07.10 월간.디

			하나된 한글의 울타리 한울전7.0	07.10 디.네트
평론 이론 담론	요셉 물러 브로크만. 그리드에 대하여	87.01 월간.디	이상의 시(詩)와 현대디자인	98.02 월간.디
	편집디자인에 있어서 장식주의 극복을 위하여	88.05 월간.디	담론으로서의 타이포그래피	98.03 디.네트
	캐서린 맥코이, 데이비드 프레이.담화로서의 타이포그래피	88.07 월간.디	그래픽 디자인에서 텍스트'읽기'와 '보기'	98.05 디.네트
	급증하는 인쇄매체 서투른 타이포그래피	90.03 월간.디	상징으로서 타이포그래피-존재 이유의 다양성에 대한 변명	98.10 디.네트
	시각디자인에 있어서의 타이포그래피	90.10 코스마	타이포그래피의 Digital	98.10 디.네트
	타이포그래피 표현의 실험적 시도 요구돼	90.11 월간.디	잡지 디자인	99.12 월간.디
	편집디자인의 개념혼란. 그 극복을 위한 시련	90.11 코스마	계몽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	99.12 디.네트
	계속되어야 할 타이포그래피 개념의 확산	91.02 월간.디	“타이포는 유리잔과 같아야 한다.”	00.03 월간.디
	창조적 시간표현을 위한 실험적 타이포그래피에 관한 연구(1)	92.03 코스마	일본 북 디자인과 동아시아 디자인의 정체성	00.10 디.네트
	1890년대 미국의 포스터와 책표지디자인	92.03 코스마	타이포그래피는 분야가 아니다	01.06 디.네트
	창조적 시간표현을 위한 실험적 타이포그래피에 관한 연구(2)	92.04 코스마	매니아가 디자인을 안다 Magazine- 허브루발린, 밀튼 글레이저, 60-70년대 미국잡지들	01.06 월간.디
	국내 편집디자인의 흐름과 전망 그리고 과제	92.04 코스마	디자인 크리에이티브와 기호학	01.10 디.네트

이젠 가면 벗을때-한국디자인의 기명성 문제	92.11 월간.디	디지털시대의 타이포그래피, 과거 속에 미래가 있다	01.11 디.네트
한글제지와 안그라픽스	93.11 월간.디	홍동원과? schrift und Typografi	03.03 디.네트
타이포그래피를 이용한 소설의 시각화작업	93.01 월간.디	북미·유럽의 새로운 디자인패러다임·작가로서 의 디자이너	03.10 디.네트
시대의 대중적 정서가 담겨있는 포스터	95.10 월간.디	여전히 겸손한, 그러나 경이로운 마썹 -로베르 마썹의 <대머리여가수>	04.03 월간.디
		트렌드를 앞선 디자인-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해체'에 가고 역할	05.09 월간.디
		박영원 교수의 디자인기호학 특강	06.1-12 디.네 트
		일본타이포그래피 11인 공동기획연재 09 허버트바이어의 북 타이포그래피	06.09 디.네트
		typography	07.10 디.네트
		친절한 디자인 평론가, 스티븐 헬러	07.10 월간.디

<타이포그래피 관련 25년간의 잡지기사 리스트>

1983-1997		년도	1998-2007	년도
타이 포그 래피	아트디렉터, 안상수	83.12 월간.디	황금팔을 가진 디자이너, 솔바스	98.02 월간.디
	허브루발린:1918-1981	87.05 월간.디	반스타일리스트, 조나단 반브룩	99.10 월간.디
	데 스틸에서 뉴 타이포그래피까지, 케스브로스	87.07 월간.디	개념 창출자로서의 그래픽 디자이너, 데이비드 크로우	99.10 월간.디
	헤르베르트 바이어: 1900-1985	87.08 월간.디	아시아 문자 속에 숨은 보물을 찾는 타이포그래피 작가, 아사바 가즈미	99.10 월간.디
	우리시대의 디자인어의 원형,폴랜드	88.08 월간.디	그래픽 디자이너 네빌브로디	00.01 월간.디
	출판디자이너, 정병규	89.03 월간.디	그래픽 디자이너 데이비드 카슨-‘<The End of Print>이후의 그래픽 디자인’	00.02 월간.디
	행동하는 자만이 역사를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실천가, 안상수	90.05 월간.디	고전과 디지털의 접목, 타이포그래피 디자이너 스티븐 페럴	00.06 월간.디
	타이포그래퍼, 김진평	90.06 월간.디	William Harald Wong	00.09 디.네트
	예술가의 집념으로 출판의 사명감을 실현해나가는 서기훈	91.00 월간.디	Garry Emery	00.09 디.네트
	엘 리시츠키 디자인의 모더니즘 요소 연구	92.07 코스마	조나단 반브룩	00.09 디.네트
	세계디자인의 이단아, 네빌브로디	92.09 월간.디	조나단 반브룩-근거 있는 열정은 전염성이 있다	01.10 월간.디

이상적인 디자인을 실현한 20세기디자인의 거장, 허브 루발린	92.10 월간.디	<ID>에서 선정하는 '영향력 있는 디자이너40인'中的 마틴 베네츠키(Martin Venezky)	02.06 월간.디
주시경과 안 치홀트의 신타이포그래피 운동	92.10 월간.디	영화타이틀 디자인의 개척자 카일쿠퍼	02.08 월간.디
미국 디자인전문지<HOW>에서 뽑은 '디자인계의 대가들'-네빌로드디/에이프 릴 그레이만/ 허브루발린/ 폴랜드..	93.06 월간.디	유희를 거두고 휴머니즘 디자인으로 : 슈테판 자그마이스터	03.03 디.네트
비주얼한 작품, 철학이 담겨있는 폴랜드의 역작<Design,Form, and Chaos>	93.10 월간.디	디자이너 대의는 죽지 않는다 : 조나단 반브룩	03.05 디.네트
타이포그래퍼, 석금호	94.03 월간.디	은퇴를 앞둔 스위스 타이포그래피 거목, 볼프강 바인가르트	03.11 디.네트
북디자이너 서기훈	95.03 월간.디	문자의 형을 탐색하다 소현 정도준	03.11 디.네트
일본DTP계의 선구자, 도다쓰도무	95.05 월간.디	디지털 폰트의 선구자, 카를로스 세규라	03.12 디.네트
그래픽디자인계의 대부 폴 랜드	97.09 월간.디	디테일에 대한 사랑으로 탄생하는 디자인 미학 '볼프강 바이네르트'	04.02 디.네트
미국 타이포그래피계의 아버지 브래드베리 톰슨	97.10 월간.디	"감동은 시간에 비례한다" 스테판 자그마이스터	04.04 월간.디
스위스그래픽디자인의 개척자 룰프 물러-브로크만	97.11 월간.디	조나단 반브룩, 어느 테러리스트의 휴가	04.05 월간.디
		스위스 포스터디자인의 정수 : '베르너 예커'	04.05 디.네트
		타이포그래피 중심이 된	04.05 디.네트

		디자인 - 박우혁	
		우연과 시각적 위트로 독일 포스터디자인 정상에서다 - 우베 뢰쉬	04.06 디.네트
		열정적인 언어조각가 - 피터 앤더슨	04.06 디.네트
		장-비노 레비 - 당신은 지금 디자인을 스쳐지나고 있다	04.11 디.네트
		타이포그래피의 로맨티스트 - 필립 아펠로와	04.12 디.네트
		브로드웨이 포스터 속 디자이너를 만나다 - 게일 앤더슨	05.03 디.네트
		마썹의 <50주년 현대문학>디자인 프로젝트 "나에게 문화는 결국 책이다"	05.04 디.네트
		야심차게 긍정적인 디자이너 브루스마우	05.05 디.네트
		네빌브로디의 비전 - 리서치스튜디오 네트워크	05.05 디.네트
		그래픽 디자이너 조경은	05.09 디.네트
		홍익대학교에서 강의하는 타이포그래퍼, 헬무트 슈미트	05.09 월간.디
		특별기획 <라슬리 모호이너지>	05.10 디.네트
		거장 디자이너와의 만남, '대화'시리즈 발간(술바스, 안 치홀트,)	06.02 월간.디
		타이포그래피의 절제미를	06.04 디.네트

			살린 웹디자인 황병삼	
			1976 이상철, 한국에 아트디렉팅 시스템을 도입하다	06.10 월간.디
			친절한 디자인 평론가, 스티븐 헬러	07.10 월간.디
			<도쿄TDC 07>서울전시에 대한한 아사바 카즈미	07.11 월간.디
폰 토 그 래 퍼	한글 타입페이스 개발의 기수들-안상수, 석금호 프론트	89.10 월간.디	평생 한글 활자 개발과 기계화에 몸바친 장봉선	98.03 월간.디
	한글 기계화 일생-공병우박사	89.10 월간.디	고 김진평, 그 고요한 내면의 치열함을 기리며	98.05 디.네트
	한글 글자꼴의 진보적 실험가,안상수	89.12 코스마	한글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디자이너 안상수	98.10 디.네트
	타이포그래퍼,한재준	90.04 월간.디	한글 창제원리에 충실한 한글꼴 개발 한재준	98.10 디.네트
	.서체개발은 나의 영원한 길, 윤영기	95.10 월간.디	디지털 시대의 글꼴	98.10 디.네트
			헤르만 자프 - 문자로 세상과 소통한다	99.09 디.네트
			고전과 디지털의 접목, 타이포그래피의 디자이너 스티븐 페럴	00.06 월간.디
			나의 '사수' 아싸수 / 도발적으로 글자를 부리는 안상수	02.07 월간.디
			타이포그래퍼 이용제	03.09 디.네트
			한글조형의 프론티어들-조의환	03.10 월간.디

		한글조형의 프론티어들- 석금호	03.10 월간.디
		한글조형의 프론티어들- 홍동원	03.10 월간.디
		보이는 활자, 그 이상의 활자를 꿈꾼다. 이용제	04.07 디.네트
		글자는 다양한 표정을 가진 그림이다. 박우혁	04.07 월간.디
		캘리그래피스트 김종건	04.08 월간.디
		이경배 산돌커뮤니케이션 팀장- 디자인은‘책임’이다	04.11 월간.디
		타이포그래퍼 김형진	05.02 디.네트
		글자와의 소통, 글자디자이너 윤선일	05.11 디.네트
		한글은 나에게 보약 같은 존재 김태현	05.08 디.네트
		살아 숨 쉬는 글자 이야기-한글디자이너 이용제	06.01 디.네트
		붓에 녹아있는 디자인 숨결 영목 강병인	06.02 디.네트
		문화 커뮤니케이터 송호성	06.04디.네트
		획과 함께 살아온 삶 오병운	06.07 디.네트
		이용제, 세로쓰기용 글꼴 개발한 한글 디자인의	07.01 월간.디

			차세대 주역	
			장인정신으로 한글의 가치를 빛내다 -석금호	07.03 디.네트
			장 프랑수아 포르셰	07.05 디.네트
			그래픽 디자이너 김태현 "건강한 글자를 만드는 것이 나의 희망이다"	07.06 월간.디
			한글 디자이너 이용제-열정과 사명감으로 한글 디자인의 미래를 책임진다	07.12 월간.디



ABSTRACT

A Study on the Change of Typography Condition

-Focused on the typography contents in the magazines
related design during 25years-

Lee, Eun-kyong

Major in Visual Communication Design

Department of Media Design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established typography articles published for 25 years in design magazines from 1983 to 2007 as its range of research, which have played a role in reporting various scenes in the field of design and providing its backgrounds on the premise of a cultural phenomenon.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uggest the present problems in the field of typography and its directions for the future by examining and analyzing the history before and after 1997 and 1998 in the field of typography more activated with the advent of computers and investigating the development of the field of typography in Korea and the trend of interests in it.

The contents of articles were largely classified into three domains for the analysis, such as type, typography and typographers. The domain of type was divided into practical business, education, exhibition, review · theory · discussion, and copyright for the investigation, the domain of typography was divided into practical business, education, exhibition and review · theory · discussion while the domain of typographer was divided into the frequency of articles and the areas and parts of activities, which made it possible to comprehend the environmental changes of typography as follows.

Firstly,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computers, the border of internet has been extended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nd since the interchange is activated, not only did the quantity of both typography-related and typographer-related articles increase, but the activity of typographers became more diversified, which shows the culture turning into a more popular and global one as well as people focusing their interests on cultures, accidents and issues in each country.

Secondly, types made by hands, typewriters or photocompositions have improved into various kinds of digital fonts incomparable with those long ago thanks to the delicacy and convenience of computers, and protective legislations for typeface were made to solve the relevant problems along with arguments that font designers should protect types legally, but it was found there are still a great many of matters to be complemented.

Thirdly, in the other way of the digital era, people have shown more interests in analog-like calligraphy, which indicates that a new trend has been settled down by complementing the imperfect attribute of digital typography with analog-like sensibility.

Fourthly, being far from the two-dimensional printed matter, typography extends its domain into literature, fashion and merchandise in combination of other domains, further its exhibitions and classes expanded through the exchange with other countries.

Fifthly, with the beginning of the digital era in the 1990s, reviews increased about the rapid increase of print media or the digital typography-related issues misinterpreted by designers lacking some historical concepts. In addition, the study talks about the present and the future of typography along with meaningful theories of typography needed in this era.

Finally, as for typographers in Korea, they lead active parts in the limited domain within an area with regional and differentiated characteristics, but as for typographers abroad, they were found to have various domains of activity and a greater width of interchange without setting limits in a single field.

Jan Tschichold, who was a revolutionary of the New Typography, pointed out that 'the spirit of the times' and 'the responsibility for the times' are what designers should have as their responsibilities. He had a lot of interests in circumstances and issues of the times and tried to solve the discovered problems with a language of the

times, which will be valuable examples to designers who have to breath with the times and create a culture of the times. In other words, as he mentioned, it is needed for us not to focus on what is a right answer but how much typography has developed, reflecting the circumstances and the spirit of the times in those days, and on the basis of the results analyzed so far, it is required for us to find the responsibilities of our times and build up design patterns fit for new demands of the times.



